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

김 순 영

대경대학 패션스페셜리스트과

The Associational Meaning of Purple-series Color Names in the Clothing of Joseon Dynasty Period

Soon-Young Kim

Instructor, Dept. of Fashion Specialist, Taekyung College

(2004. 5. 27 투고)

ABSTRACT

In this study,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purple series color names appearing in the clothing of the Joseon Dynasty were examined, and the associational meaning of each name were investigated through various metho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ch characteristics as continuity, differentiation, substitution could be observ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olor names of purple-series appeared on the clothing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Secondly, the associational meaning could be subdivided into; social position symbolic meanings, usage meanings, economic meanings, and thought meanings. The social position symbolic meanings could be observed mainly in the single names which has been used since the ancient times, usage meanings could be observed in a wide variety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olor names. The economic meanings could be observed by comparing the value of colored cloths and colored threads. The thought meanings were mainly related with the Confucianism.

Thirdly, the associational semantic structure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ssociational meanings of purple-series color names. Individual color name on the social position symbolic semantic structure symbolizes [government official] and [servant]. Through usage semantic structure individual color names could be understood structurally according to the social position, sex distinction, wearing situation, items of clothing, and structure of clothing. Individual names on the economic semantic structure were segmented by the semantic components of the values in [high], [medium], [low] prices, kinds and quantity of dyes. The thought semantic structure could be subdivided [Confucianism] and [The Thought of Taeil] in its semantic structure.

Key words: purple color(자색), color name(색명), associational meaning(연상적 의미), semantic components(의미성분), structure(구조)

I. 서론

모든 사물과 현상은 적절한 이름이 부여됨으로써 존재와 의미가 구체화된다. 색명은 색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색의 이름을 통해 구체화되는 의미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리취(G.Leech)가 정의한 언어의 의미 유형들 가운데 내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포괄하는 연상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¹⁾

색명의 연상적 의미는 색명이 가지는 비본질적 의미로서, 특정 색명을 보거나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색명에 대해 떠올리는 느낌이나 생각, 또는 사회적 환경 등을 말한다. 이는 의사소통에 필수적, 본질적인 의미인 개념적 의미와 달리 맥락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복식에 나타나는 색명의 연상적 의미는 비본질적이며 맥락적인 의미이므로 색채의 사회적 기능이나 색채의 상징성 등과 관련이 있다.

복식에 나타나는 색채의 사회적 기능은 한 사회에서 개인이 특정 복색을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맞게 착용할 때 그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특정 색을 누가 어떠한 옷에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사회적 계층은 경제적 부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 기능은 곧 그 색의 금전적 가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복식에 나타나는 색채의 상징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색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의미가 오랜 시간을 경과하여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특정 의미를 갖게 된 측면(즉, 신분 상징)이며, 다른 하나는 고대로부터 전해진 사상에 의해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 측면이다. 이와 같이 색명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전통색명에 내재된 우리 조상들의 색채문화를 발굴하고 오늘날 우리 민족의 색채감각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서로 다른 색조와 톤에 의해 미묘한 시각적 차이를 형성하는 색의 본질적 속성과 마찬가지로, 개별 색명이 지니는 내재적 의미도 색명의 전체적 장에서 서로의 차이와 비교를 통해 구조적으로 이해될 때 보다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을 대상으로 하여 색의 사용자와 용도, 색명의 경제적 가치, 색명이 갖는 신분상징성, 사상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드러나는 개별 색명들의 연상적 의미를 의미체계 내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紫色은 고대 동양의 사상으로 불 때 間色으로 여겨져 금제의 지속적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고위 신분의 상징색으로서 끊임없이 사랑받아온 색이며, 조선에서는 왕족 여인들의 치마나 예복에 사용되어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거나, 일상복 저고리 깃과 고름 등에 강조색으로 많이 사용된 색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종류를 나열하고 이들 색명의 통시적 변화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신분상징적, 용도적, 경제적, 사상적 의미)를 이해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 문헌자료는 조선시대 복식과 색명에 관한 기록이 많은 사료로서 『朝鮮王朝實錄』, 『嘉禮都監儀軌類』, 『殯殿嬪宮都監儀軌類』, 『별기류』이며, 그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老乞大·朴通事』 언해류, 『譯語類解』, 『方言類釋』, 『才物譜』, 『廣才物譜』 등의 어휘사전류,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秋官志』 등의 法典·禮典類, 『尙方定例』, 『度支準折』 등의 定式類, 『眉巖日記』, 『규합총서』, 『林園經濟志』, 『星湖僊說』, 『五洲衍文長箋散稿』, 『芝峯類設』, 『朝鮮女俗考』 등의 개인저서, 『樂學軌範』을 참고로 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체계를 수립한다. 이는 낱말발 이론과 성분분석이론으로 대표되는 어휘의미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II. 자색계 색명의 변천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나는 자색계 색명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상의 총 17개의 자색계 색명들이 조선시대 500

<표 1> 자색계 색명의 종류

분류		자색계 색명	소계	합계
단일색명		紫(즈, 즈디, 즈지, 즈덕), 甫羅(보라)	2	17
복합색명	색명+무의미적 단위	紫的(즈덕, 즈지)	1	
	색명+색명	紫赤, 赤紫	2	
	사물+색명	紫芝, 紫地, 丹木紫色, 灰甫羅(회보라), 지초보라, 양보라, 丹木紫的, 양즈덕, 洋紫芝	9	
	형용사적 표현+색명	淡紫色, 眞紫(즈지), 眞紫の色	3	

()안은 한자표기에 해당하는 한글표기임.

여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시간의 편중 없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계기로든 言衆들의 언어생활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색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문헌에서 자색계 색명의 등장 빈도를 분석하고, 상이한 연대를 가지는 문헌들에 등장하는 자색계 색명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복식·직물과 관련된 자색계 색명의 통시적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문헌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색명의 등장 횟수를 모두 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각 시기별로 집계된 『朝鮮王朝實錄』의 기사 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빈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표 2>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기사 수를 50년 단위로 집계한 것이다. <표 3>은 편년이 서로 다른 老乞大·朴通事 언해류와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方言類釋』에 등장하는 자색계 색명들을 편년순으로 비교한 것이다. <표 4>, <표 5>, <표 6>은 儀軌類²⁾에 등장하는 자색계 색명의 종류를 의계의 편년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상의 표로 정리된 문헌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고, 이 외에 개인저서와 기타 어휘사전류, 불기류 등 다른 문헌들의 내용을 부가적으로 함께 분석한 결과, 자색계 색명의 지속, 분화, 교체 등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1. 지속

색명이 조선시대 전체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우수한 안정성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紫는 자색계 색명 가운데 『朝鮮王朝實錄』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전체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적 단일색명이다. 紫는 거의 대부분의 의

계류에서 등장하고 있고, 19세기 이후의 기록인 불기류에서도 紫色(즈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걸대·박통사 언해류와 『譯語類解』 및 『譯語類解補』에서 한자색명 紫가 한글표기로 즈디(즈디빛), 즈지, 즈덕으로 언해되어 있고, 『才物譜』에서 ‘紫紵絲’를 ‘즈지비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규합총서』에서도 ‘즈’가 곧 ‘즈덕’이라고 주를 덧붙이고 있다. 이를 볼 때, 조선에서 복식·직물의 색을 표현하며 등장하는 紫는 대부분 紫的(즈디, 즈지, 즈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염색법이 기록된 丹木紫色도 丹木紫의 과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다만 紫는 일반 사물이나 자연의 빛깔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있음에 반해, 紫的은 표현대상이 주로 복식·직물에 한하고 있었다.

2. 분화

색명의 사용빈도가 후기로 갈수록 점차 많아지고, 색명의 형태와 의미가 분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1) 甫羅

甫羅는 『朝鮮王朝實錄』에서 175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으나, 의계류에서는 1600년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에 이미 등장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이후의 고문서인 불기류에서 한자 및 한글표기로 많이 보이고 있다. 甫羅는 ‘보라’라는 발음과 유사한 한자를 빌어 표현한 대표적 표기로 보이는데, 이 외에도 穩羅³⁾, 寶羅⁴⁾ 등의 한자표기가 보인다. 불기류에는 甫羅(보라)뿐만 아니라 灰甫羅(회보라), 양보라의 기록도 나타난다. 또한 『규합총서』

<표 2>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복식·직물 관련 자색계 색명의 기사 수

분류	연대 색명	1392~	1401~	1451~	1501~	1551~	1601~	1651~	1701~	1751~	1801~	1851~	1901	소계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	
단일색명	紫(紫色)	1	54	60	11	2	10	1	16	12	4	3	·	174
	甫羅(甫羅色)	·	·	·	·	·	·	·	·	7	1	·	·	8
복합색명	紫的	·	2	9	8	·	2	3	·	4	4	·	·	32
	紫芝	·	·	·	·	·	·	·	·	·	·	·	2	2

<표 3> 老乞大·朴通事 언해류, 어휘사전류를 통해 본 자색계 색명의 변천

문헌	편년	漢語	언해	倭語	표현대상
翻譯老乞大	1510년경	紫	즈디		條兒
翻譯朴通事	1510년경	紫	즈디비챗		직물류
老乞大諺解	1670	紫	즈디		條兒
朴通事諺解	1677	紫	즈덕, 紫		직물류
譯語類解	1690	紫	즈디		직물류
平壤監營重刊老乞大諺解	1745	紫	즈디		條兒
朴通事新釋諺解	1765	紫	紫		貂帽
譯語類解補	1775	紫色	즈지		·
方言類釋	1778	眞紫	자지	무라사기	·
重刊老乞大諺解	1795	紫	즈지		條兒
重刊老乞大諺解	1795	眞紫	즈지		직물류

<표 4> 의례류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등장경향(1600년대)

분류	연대 편년 색명	1600	1601~1650						1651~1700								
		1600 女	1627 세자	1632 女	1638 왕	1645 男	1649 男	1651 세자	1659 男	1671 세자	1674 女	1675 男	1680 女	1681 왕	1683 女	1696 세자	
단일색명	紫	○	○		○	○	○	○	○	○	○	○	○	○	○	○	
	甫羅	○		○													
복합색명	紫的	○	○	○	○	○	○	○	○	○		○	○	○	○	○	
	紫芝							○									
	淡紫色		○														

배경음영: 嘉禮都監儀軌類, 배경무색: 殯殿殯宮都監儀軌類

<표 5> 의례류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등장경향(1700년대)

분류	연대 편년 색명	1701~1750										1751~1800									
		01 女	02 왕	18 세자	18 女	20 男	24 男	27 세자	28 男	30 女	44 세자	51 女	52 男	57 女a	57 女b	59 왕	62 세자	62 男	76 男	86 男	00 男
단일색명	紫	○	○	○	○	○	○	○	○	○	○	○	○	○	○	○	○	○	○	○	○
	甫羅				○							○									○
복합색명	紫的	○	○	○	○	○	○	○	○	○	○	○	○	○	○	○	○	○	○	○	○
	紫芝																				
	淡紫色																				

배경음영: 嘉禮都監儀軌類, 배경무색: 殯殿殯宮都監儀軌類

1757女a는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 1757女b는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 편년은 뒤의 2자리수만 표기하였음.

<표 6> 의례류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등장경향(1800년대 이후)

분류	연대 편년 색명	1801~1850												1851~1900								1901~			
		02 왕	05 女	15 女	19 세자	21 女	22 女	30 男	34 男	37 왕	43 女	44 왕	48 후궁	49 男	51 왕	60 女	63 男	66 왕	78 女	82 세자	86 女	95 女	03 女	04 女	06 황태자
단일	紫	○	○	○	○	○	○	○	○	○	○	○	○	○	○	○	○	○	○	○	○	○	○	○	○
색명	甫羅											○													
복합	紫的	○	○		○	○		○	○	○	○	○	○	○	○	○	○	○	○		○				○
	紫芝																								
	淡紫色																								

배경음영: 嘉禮都監儀軌類, 배경무색: 殯殿殯宮都監儀軌類, 편년은 뒤의 2자리수만 표기하였음.

에서는 보라와 지초보라(지초보라)를 구분하여 염색법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라는 1600년 이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그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지초보라, 회보라, 양보라 등으로 분화된 이름을 가질 정도로 세력이 성장한 색명임을 알 수 있다.

2) 紫的, 紫芝

紫的은 『朝鮮王朝實錄』에서 1400년대부터 1850년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의례류에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불기류에서도 紫的, 즈덕, 즈적, 자적, 자적 등의 표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才物譜』와 『廣才物譜』에서 紫的은 즈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볼 때 노걸대·박동사 언해류와 『譯語類解』 및 『譯語類解補』에 기록된 紫의 언해표기인 즈디, 즈지, 즈덕이 곧 이 紫的의 한글표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즈지의 또 다른 한자표기로 紫芝가 있는데, 조선에서 紫的과 공존하며 사용된 표기이다. 紫芝라는 한자표기는 '즈디'가 구개음화되어 '즈지'로 발음된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로 읽히는 한자로 '芝'가 채택된 것이다. 이는 紫의 염색 재료가 紫草, 곧 芝草였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 한자색명인 紫가 조선에서는 紫的(혹은 紫芝)으로 정착되어, 복식·직물과 관련된 색명으로서 그 세력이 紫를 능가하였다. 조선 후기의 문헌인 『五洲衍文長箋散稿』와 불기류에서 紫的과 관련하여 丹木紫的, 眞紫的色, 양즈덕 등의 다양한 색명을 볼

수 있고⁵⁾, 紫芝와 관련해서는 洋紫芝라는 표기를 볼 수 있다.⁶⁾

3. 교체

기존의 색명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맥에서 다른 색명이나 다른 표기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1) 紫的의 紫芝, 紫地, 紫赤으로의 교체

앞서 紫的이 즈덕, 즈지 등으로 읽히며 그 가운데 '즈지'로 발음될 경우의 다른 한자표기로서 紫芝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紫的은 조선 초기부터 많이 사용된 한자표기인데 반해, 紫芝는 1575년 『眉巖日記』⁷⁾와 1649년 『仁祖殯殿都監儀軌』⁸⁾에 등장하고 있고, 20세기 초의 문헌인 『純宗實錄』과 『朝鮮女俗考』 등에서 보이고 있다.⁹⁾ 또한 1571, 1572년 『眉巖日記』¹⁰⁾와 1740년경의 『星湖僊說』¹¹⁾에는 紫芝와 발음이 같은 紫地의 기록도 있다. 이상에서 조선초기부터 사용된 紫的이라는 표기가 점차 紫芝, 紫地와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례류와 불기류 등에서는 紫芝, 紫地가 자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紫的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1781년의 『秋官志』¹²⁾에는 紫赤이 등장하는데, 紫的의 발음 중 하나인 '즈덕'이 '즈적'으로 발음되면서 紫赤이라는 한자표기도 간혹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에서 紫芝, 紫地, 紫赤은 모두 紫的의 세력을 능가하지는 못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교체된 한자표기였다.

2) 深/淺(淡)의 眞/軟으로의 교체

深/淺(淡), 眞/軟 등과 같은 한자가 색명에 사용되면 이는 일반적으로 색의 짙고 옅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비록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나, 1627년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¹³⁾에 淡紫色의 기록이 있다. 또한 1778년의 『方言類釋』과 1795년의 『重刊老乞大諺解』에 眞紫의 기록이 있으며, 『五洲衍文長箋草稿』에는 眞紫의 色의 기록이 있다.¹⁴⁾ 이상에서 색명에 나타나는 深/淺(淡)의 형용사적 표현이 점차 眞/軟으로 바뀌어 감을 짐작할 수 있다.

4. 기타

등장하는 횟수가 너무 작거나 특정시기에만 등장하여 변천을 논하기 어려운 색명들이 있다. 1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자색계 색명으로 灰甫羅(회보라), 양즈덕, 洋紫芝, 양보라, 각종 兩色(양색) 등이 있다.

灰甫羅(회보라)는 국말의 각종 불기류에서 보라와 함께 자주 보이는 색명이다. 양보라는 1881년의 『최학영(신스동형)브팀불기』와 같은 해의 『신스스월가례시도팀갑주은불기』, 1889년 『기특지월최석영별부불기』에 등장한다. 양즈덕은 1881년의 『최학영(신스동형)브팀불기』와 같은 해의 『신스팔월니익순브팀불기』에 등장한다. 洋紫芝는 1880년의 『別付上納件記(庚辰十二月二十日第二次)』에 등장하는데, 紫의과 紫芝가 동일한 색의 다른 한자표기임을 볼 때, 곧 양즈덕을 말한 것이다.

자색계 兩色(양색)의 종류에는 즈냥식(즈식양식), 보라양식, 즈덕양식 등이 있다.¹⁵⁾ 직물의 경사와 위사의 색을 다르게 쓰면 양색이 나고 움직일 때 마다 색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¹⁶⁾ 그런데 즈, 보라, 즈덕 등은 한 가지 색을 지칭하는 색명인데, 어떤 느낌으로 이들 양색이 두 가지 색을 나타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방주를 만들 때 경사에 色絲를 쓰고 위사에 素色을 쓰면 마치 표면에 안개가 자욱이 낀 듯하여 매우 보기에 좋다고 하는데¹⁷⁾, 그렇다면 이들 양색은 경사에 色絲를 쓰고 위사에 素色을 써서 色織物에 안개 낀 듯한 느낌을 나타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Ⅲ.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

자색계 색명이 갖는 신분상징성, 색명의 실제 사용자와 용도, 색명의 경제적 가치, 색명의 사상성을 분석함으로써 복식에 나타나는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신분상징적 의미

『朝鮮王朝實錄』에서 자색계 색명과 관련된 신분상징의 은유적 표현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단일 한자색명인 紫에서 발견되었다. 紫는 紫袍, 緋紫라는 표현을 통해 관직을 비유하는데¹⁸⁾, 이들은 모두 唐의 古史를 인용한 문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靑紫¹⁹⁾라는 표현을 통해 역시 관직이나 公卿의 높은 지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紫는 조선 후기에 紫衣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궁에서 각종 심부름을 맡아 한 掖隸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²⁰⁾

2. 용도적 의미

『朝鮮王朝實錄』과 의례류, 불기류 등을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자색계 색명의 실제 사용자와 용도를 분석하였다. 자색계 색명이 복식에 사용되어 나타나는 사례에 관한 원문과 출전은 매우 방대하므로²¹⁾, 이 절에서는 각각의 색명에 대한 고찰 결과만을 기술하였다.

1) 紫

(1) 王族 복식

紫는 上王의 衣와 왕비의 長衣, 紫綃笠, 대왕대비의 翟衣에 나타난다. 또한 세자 冠服(赤羅衣, 靑羅衣)의 綬, 靴子, 靱鞋를 비롯하여 元子の 袂衫, 세자빈의 帶腰, 황태자비와 후궁의 紫綃笠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왕비의 紫綃笠에는 실제로 紫의 직물(紫의羅, 紫의綃)이 사용되었고, 왕대비와 대왕대비의

翟衣에 역시 紫의이 사용되었다. 또한 세자빈의 帶腰를 紫的羅로 만든 기록이 있으며, 황태자비의 紫綃笠 역시 紫的綃로 만든 것이다.

(2) 士庶人 복식

紫는 1~3품 문무관 冠服(赤羅衣, 靑羅衣)의 綾에 나타난다. 紫는 世宗代에 卿大夫로부터 賤隸에 이르기까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입기를 좋아한 색이었다.²²⁾ 따라서 진상과 궐내 소용 외에 자색을 입지 못하게 하였으나, 금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朝士들이 공공연히 입고 다닌 색이었다.²³⁾ 紫色은 왕이 하사한 朝臣의 帖裏와 塔胡, 朝士의 單衣, 당상관의 帶와 鬚笠, 戎服笠, 裕護에서 보이며, 또한 왕이 중국사신에게 선물한 紫草笠과 搭胡에서도 보인다. 그런데 왕의 하사품인 朝臣의 帖裏에 紫的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 『眉巖日記』에 의하면 紫는 士人의 小赤古里, 笠, 囊을 비롯하여 士婦人의 衣와 草鞋, 그리고 童靴에 사용되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紫色의 衣와 帶는 庶人, 賤人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색이다. 조선초기에는 양녕대군의 첩이 紫衫을 입어 禁吏에게 붙잡힌 일까지 있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紫帶를 매거나 紫色楊衣를 입은 기록²⁵⁾이 있음을 볼 때 서민들의 紫色 선호를 짐작할 만하다. 『朝鮮女俗考』에는 신부의 上衣(赤古里)로 寶羅色이 등장하는데 이 寶羅가 곧 紫色이라고 한 기록도 있다. 『經國大典』에서 庶人에게 금지된 紫帶가 『新補受教輯錄』에서는 紫的帶로 표기되어 있으며, 『芝峯類設』에서 양녕대군의 첩이 입었다는 紫衫은 『秋官志』에 紫赤衣로 표기되어 있다.

(3) 宮人, 妓工人, 승려, 軍人, 別監, 下隸, 差備人 복식

紫는 內侍의 衣에 사용되었으며, 樂正 公服, 男樂星才 冠服(歌童의 頭巾과 舞童의 衣, 袍, 帶, 中單襟, 靴 起花), 定大業星才 甲冑의 纓子, 武舞工人 甲의 紐子, 女妓복식의 流蘇에 사용되었다. 또한 기녀의 裳과 무녀의 衣, 승려의 僧鞋와 方袍에도 사용되었다.

紫는 近仗服, 近杖衣, 內班 近侍의 弁, 陪扈 신하들의 관모색이다. 紫는 儀仗군인과 衛卒의 衣와 巾에서 보이며, 별감 및 中禁의 衣와 巾에 사용된 색이다. 또한 引路의 巾과 帶, 下隸의 衣와 巾에 사용되었으며, 각종 의식의 행차시에 각기 다른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던 差備人의 衣와 巾에서 많이 보인다. 그런데 紫色의 中禁服은 또한 紫的冠과 表衣紫的團領으로도 표현되며, 가례수행원인 內侍의 紫衣는 또한 紫的天蓋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용도와 관련한 紫의 기록들을 볼 때, 왕족 복식, 士庶人 복식, 宮人, 下隸 등의 복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紫가 국말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紫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甫羅

보라는 왕의 中赤莫, 長衣, 裕褱호, 四揆衫, 周衣, 狹袖衣, 赤古里, 동의디를 비롯하여, 안감으로는 玉色 道袍의 안감에 사용되었다. 또한 보라는 왕비, 대왕대비의 長衣와 赤古里, 왕대비의 쇼고의, 상왕제(고종)의 봉디, 황제의 주의와 동의디에 나타난다. 보라는 세자의 長衣와 황태자의 동의디에 사용되었으며, 후궁의 저고리와 의복, 왕자군의 저고리와 자근저고리, 군부인의 저고리, 친왕의 동의복(동의디)과 봉디에 사용되었다.

보라는 세자빈후보의 赤古里(저고리), 소고의와 후궁후보의 의복, 저고리의 색이다. 또한 보라는 가례시 관련된 왕실 친인척의 저고리와 신랑의 저고리에 사용되었으며, 신부의 上衣(赤古里) 三勺을 이루는 색 가운데 하나이다. 보라는 상궁, 보행내인, 침실내인, 침방야해 등 궁중내인의 저고리와 바지(단속것)에도 사용되었다.

3) 紫的, 紫芝, 紫地, 紫赤

(1) 王族 복식

紫的은 조선 전기에 이미 御衣와 衣褂용으로 궐내에서 사용되었다. 紫的은 왕의 遠遊冠, 中赤莫, 長衣, 裕褱에 나타나며, 왕비의 長衫, 串衣, 短赤古里的 衿, 赤古里, 胡袖, 胡袖의 衿, 赤兀, 面紗, 面紗의

月尓只, 首沙只, 首沙只의 月尓只, 露衣帶, 紫綃笠, 紫綃笠의 月尓只, 笠纓月尓只, 汝火(羅兀), 너울의 笠纓, 溫鞋 등에 나타난다. 또한 紫의은 왕대비의 袂 隔音과 왕대비, 대왕대비의 翟衣, 국말 황제의 圭의, 황후의 옷치마 등에 사용된 색이다.

紫의은 세자의 馬尾笠, 馬尾頭冕의 纓子, 小烏冠(小烏巾)의 纓子, 鴉青袞龍袍의 帶, 帖裏의 月尓只, 腋注音에 나타나며, 세자빈의 圓衫, 唐古衣(당고의), 串衣의 걸과 안, 串衣의 衿, 赤古里, 赤古里의 纓子, 胡袖, 胡袖의 衿, 袂隔音(견마기), 赤尓(치마), 上裳(옷치마), 편옷치마, 面紗, 面紗의 月尓只, 首沙只, 首沙只의 月尓只, 帶腰, 露衣帶, 金都多益眞珠粧笠, 青綃笠의 月尓只, 汝火(羅兀), 너울의 纓子, 溫鞋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紫의은 세자빈과 마찬가지로 세손빈의 串衣, 赤古里, 赤尓, 面紗, 首沙只, 帶腰, 羅兀, 溫鞋에 사용되었다. 紫의은 국말 황태자의 圭의와 동의디에도 나타나며, 왕비와 동일하게 황태자비의 串衣, 赤古里, 胡袖, 赤尓, 面紗, 面紗의 月尓只, 首沙只, 首沙只의 月尓只, 露衣帶, 紫綃笠, 羅兀, 羅兀의 纓子, 溫鞋에 사용되었다.

紫의은 왕 후궁의 圓衫, 견마기, 불피, 덧토슈, 운혀, 띄 등에 나타나며, 군부인의 圓衫, 견마기, 닛저고리, 운혜, 운혀 등에 사용되었다. 또한 국말 친왕의 농포와 소농포, 圭의, 동의디에 나타나며, 친왕비의 圓衫, 응주의 圭의와 동의복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士庶人 복식

紫의은 세자빈 부친의 衣服, 왕비 부친과 세자빈 부친의 團領 纓子, 帖裏(帖裏, 貼裏)의 月尓只, 왕비 모친과 세자빈 모친의 赤古里 纓子에 사용되었으며, 세자빈 후보의 잇소고의, 단기, 운혀, 후궁 후보의 당의복, 잇의복, 면사보, 양단기, 운혀에도 사용되었다. 紫의은 당하관의 衣에 금지된 색이므로 당상관에게 주로 허용된 색임을 알 수 있으며, 왕이 朝臣과 중국 使臣에게 하사한 帖裏에서도 볼 수 있는 색이다. 16세기 『眉巖日記』에서 紫의은 士人의 囊子에, 紫地는 士人의 天益에, 紫芝는 士人의 혼례 繪帶에 나타나는데, 紫芝는 국말의 『朝鮮女俗考』에서도

혼례시 신랑의 緊兒와 冠帶, 弊衣, 신부의 三懷粧, 下任(女僕)의 赤古里 등에 나타나고 있다. 紫赤은 대군의 첩이 입을 衣에 나타났다.

(3) 官人, 妓工人, 下隸 복식

紫의은 尙官, 侍女, 乳母, 기행내인의 涼耳掩 纓子와 青箱笠 纓子, 보행내인의 涼耳掩(耳掩) 纓子에 사용되었고, 內侍의 天益과 廣多繪, 歸遊赤內官의 衣와 天益에 사용되었다. 紫의은 舞童의 芙蓉冠 纓子, 女伶의 掛子(快子), 기녀의 逆祥에서 볼 수 있으며 中禁의 冠과 表衣(團領)에도 나타난다.

4) 灰雨羅

회보라는 국말 상황제(고종)의 비즈, 황제의 圭의와 동의디, 봉디에 사용되었으며, 황태자의 圭의와 봉디에 사용된 색이다.

5) 淡紫色, 眞紫(眞紫的色)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²⁶⁾에는 비록 복식과 관련된 표현은 아니지만 淡藍色, 淡紅色, 淡黃色과 더불어 淡紫色의 기록이 보인다. 『方言類釋』과 『重刊老乞大諺解』에 眞紫(자지, 즈지)의 기록이 있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 眞紫的色의 기록이 있었다. 이를 볼 때 비록 색명으로써 淡紫, 眞紫, 眞紫的 등의 표현이 혼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紫, 紫的의 색조에는 길고 열음의 구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紫와 紫的의 개념적 의미를 특히 용도와 관련하여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용도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대비의 최고예복인 紫色(紫的)翟衣와 下隸의 紫衣가 과연 동등한 수준의 색조였는가 의문시되는 것이다.

3. 경제적 의미

조선후기의 문헌인 『萬機要覽』과 『度支準折』에는 각색, 각종 직물과 실, 염료의 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두 문헌에서 같은 종류의 직물 및 실에 한하여 서로 다른 색들 간의 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자색계 색명이 갖는 상대적 경제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1) 紫

『度支準折』에서 紫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木과 布의 경우 紫가 鴉靑, 紅보다 싸고 黃보다 비싼 가격이었다. 조선 복식에서 紫와 紫的을 동일한 의미로 본다면, 후술할 紫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紫도 경제적 가치의 범위가 넓었을 가능성이 있다.

2) 甫羅

『度支準折』에서 甫羅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大緞, 眞絲의 경우 甫羅는 紫의보다 싸고 朱黃, 粉紅과 비슷한 가격이다. 둘째, 絨絲의 경우 甫羅가 紫的, 粉紅보다 비싸고 朱黃과 비슷한 가격이다. 보라는 대체로 芝草로 물들인 고가의 紫的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才物譜』에서 보라를 '淺紫色'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지초로 염색한 지초보라라면 紫의보다 필요한 재료의 양이 적거나 염색횟수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絨絲의 경우 보라가 紫의보다 비싼 이유는 紫的의 향에서 후술하겠지만 이때의 紫的이 값비싼 지초가 아닌 저가의 丹木으로 염색된 丹木紫的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 紫的

『萬機要覽』에서 紫的吐紬는 大紅吐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그러나 『度支準折』에서 大紅(多紅)과 紫的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度支準折』에서 紫的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大緞, 廣的, 杭羅, 輕光紬, 潞州紬의 경우 紫的은 眞紅, 桃紅, 大紅(多紅)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大紅(多紅)보다 비싸다. 둘째, 錦線, 紗, 綾, 方絲紬, 吐紬, 紬의 경우 紫的은 大紅(多紅)보다 싸고, 大緞, 杭羅, 潞州紬, 綃, 眞絲의 경우 朱黃, 粉紅, 甫羅보다 비싼 가격이다. 셋째, 絨絲의 경우 紫的은 朱黃, 粉紅, 甫羅보다 싼 가격이다. 이상에서 볼 때, 紫的은 가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紫的은 가격의 범위가 커서 모든 색 가운데 가장 고가에 해당하는 眞紅, 大紅과 비슷

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일 때도 있고, 眞紅, 大紅보다 경제적 가치가 낮은 粉紅보다도 싼 가격일 때도 있다.

紫的의 가격 범위가 넓은 사실은 紫的이 얼마나 질고 열게 염색되었는가, 혹은 紫的의 염색재료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度支準折』에 기록된 芝草 1兩의 가격은 8分5里로, 이는 紅花의 약 2/3에 해당하며 丹木의 14배에 가까운 가격이다. 紫的이 이렇게 비싼 芝草를 주재료로 이용하여 10여차례 물들인 眞紫의色이라면 고가일 것이고, 만일 1兩에 6里2戶밖에 하지 않는 저가의 丹木 등을 주재료로 이용한 丹木紫色(丹木紫的)이라면 저가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紫的은 丹木보다는 芝草를 주재료로 하여 염색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度支準折』入染物種에 紅花는 '紅色入染', 芝草는 '紫的入染所用', 丹木은 '守僕紅衣入染'이라 기록되어 있어 각 재료의 주된 용도를 알 수 있다.

경제적 의미에서 紫的(紫)의 가격 범위가 넓은 사실을 용도적 의미와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 下隸 등의 衣에 나타나는 자색을 저가의 자색으로, 대비의 翟衣에 나타나는 자색을 고가의 자색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사상적 의미

『朝鮮王朝實錄』과 『眉巖日記』에서 자색계 색명이 갖는 사상적 의미를 추출해 보았는데, 古代로부터 사용된 단일색명인 紫에서 유교사상 및 太一개념을 찾을 수 있었다. 유교사상은 正間사상 및 崇儉정신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太一개념은 紫宮개념과 瑞祥의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正間 사상과 관련하여 紫는 朱에 반대되는 사악함(邪), 그릇된 것의 상징이다. 앞서 신분 상징적 의미에서 언급했듯이 靑紫는 관직이나 높은 지위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是非(옳고 그름)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하다.²⁷⁾ 靑은 正色이고 紫는 間色이므로 正間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崇儉정신과 관련해 볼 때 紫는 검소함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朱紫²⁸⁾, 絳紫²⁹⁾, 紅紫³⁰⁾라는 표현을 통해 화려함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喪中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색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紅紫

의 경우 신분에 맞지 않게 사치한 자들을 경계하는 기사³¹⁾에서도 간혹 보이는 표현이다. 間色인 紅과 紫가 합해져서 더욱 나쁜 쪽, 즉 화려함을 넘어서 사치의 의미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太一개념과 관련하여 紫極, 紫氣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³²⁾, 紫極은 임금의 계신 궁궐을 의미하며 紫氣는 귀인이 태어날 때 솟아오른 기운이었다. 고대 중국에서 太一은 天神의 귀한 자를 말하며 太一이 있는 곳을 紫宮이라고 하였다.³³⁾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황제이므로 紫宮은 곧 황제가 머무는 궁궐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紫極은 바로 紫宮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天神이 머무는 紫宮은 신비롭고 고귀한 곳으로 이는 곧 紫色이 신비롭고 상서로운 기운을 의미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앞서 신분상징적 의미에서 紫가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복색이었던 사실이나, 비록 신분은 낮지만 궁궐의 掖隸들을 紫衣로 상징한 사실과도 관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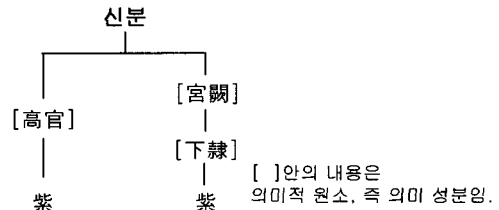
IV.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체계

날말발 이론과 성분분석 이론에 의하면³⁴⁾, 전체 색명은 개별 색명들이 내용상으로 서로 인접하고 상호적으로 의존해 있는 일종의 발 구조이며, 개별 색명의 의미는 단일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적 원소(즉 의미자질, 의미성분)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체계는 자색계 색명이 갖는 연상적 의미의 원소들(즉, 연상적 의미성분)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삼아 만든 체계적인 색명의 날말발으로서 신분상징적 의미, 용도적 의미, 경제적 의미, 사상적 의미 각각에 대한 구조적 발을 말한다.

1. 신분상징적 의미체계

신분상징적 의미는 고대로부터의 용도적 의미가 오랜 세월을 경과하여 관념적으로 굳어진 의미이다. 따라서 이 발 구조에 등장하는 색명들은 주로 고대로부터 사용된 기원이 오래된 색명들인 경우가 많

다. 자색계 색명 가운데에서는 紫만이 신분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색명의 종류가 하나뿐이지만, 만일 다른 계열의 색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한다면 보다 많은 색명들이 신분상징적 의미구조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그림 1> 신분상징적 의미체계

紫는 [高官]의 신분과 [宮闕][下隸]의 신분을 상징한다. 紫가 [高官]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은 삼국 시대에서 고려까지 백관의 관복서열상 최고위의 지위를 가졌던 紫의 상징성이 조선에까지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紫가 조선 후기에 지위가 낮은 [宮闕][下隸]의 신분을 상징하게 된 원인으로는 조선 초기 紫色 禁履의 예외에 관한 부분과 고대로부터의 紫宮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에 下隸와 差備인이 紫色을 입은 기록을 문헌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당시 紫色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들 입기를 좋아한 색이어서 수차례 금제령이 내려지는데, 그 금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로 進上衣襟과 闕內所用이다.³⁵⁾ 또한 近杖과 中禁이 紫色을 입는 것은 중국사신도 그르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紫色은 고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기록이 있다.³⁶⁾ 진상의대는 왕족들에게 바쳐진 옷이고, 궐내소용에 바로 이들 近杖과 中禁 등의 복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中禁은 액정서의 별감 밑에 두었던 심부름꾼을 말하므로 이를 궁궐내의 下隸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近杖과 中禁 등의 복식은 어가행렬이나 각종 궁중행사의 威容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紫色 사용이 허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의 紫衣는 고대로부터 궁궐을 상징해 온 紫宮의 개념에도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궐내 下隸 집단의 紫衣

착용은 고려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다.³⁷⁾ 이것이 조선에 그대로 이어진 것인데, 조선 초기에 법적으로 下隸의 紫色 착용을 허용하기까지 했으므로 이들의 紫色 사용이 자유롭게 계속 이어져, 조선 후기에는 紫가 아예 [宮闕][下隸]의 신분을 상징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용도적 의미체계

용도적 의미체계는, 실제 사용자와 용도면에서 공통성과 유사성을 갖는 색명들이 형성하고 있는 발 구조이다. 즉, 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요소(즉 연상적 의미성분)는 바로 실제 사용자와 용도이다. 사용자는 복식을 착용하는 사람의 신분 및 성별과 관련된 것이고, 용도는 복식을 착용하는 상황, 복식항목, 복식의 구조 등과 관련된 것이다.

사용자의 신분은 크게 [王族], [士庶人], [특수신분]으로 나누어졌다. [王族]은 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세자, 세자빈, 후궁, 대군, 왕자군, 군부인, 공주, 옹주 등을 포함하며, [士庶人]은 벼슬에 오른 양반이나 중인을 비롯하여 벼슬은 없지만 자유민이었던 상민을 포함하는 양인 신분층을 말한다. [특수신분]에는 宮人, 妓工人, 軍人(軍官과 軍卒), 別監, 下隸, 差備人 등이 있다. 사용자의 신분은 다시 [男], [女]의 성별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신분 및 성별 내에서 복식은 착용상황에 따라 [의례복]과 [일상복]으로 나누어졌다. 의례복과 일상복은 각각 복식항목에 따라 [冠帽], [表衣], [上衣], [下衣], [신], [附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다만 특수신분 가운데 軍人, 別監, 下隸, 差備人은 모두 남자이므로 별도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고, 이들의 복식은 직업복의 성격이므로 의례복과 일상복을 나누지 않았다.

복식항목들은 옷의 구조에 따라 겹옷과 홑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겹옷은 겹감과 안감의 배색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겹감에 사용된 색을 [겉]의 용도라 할 수 있고 안감에 사용된 색을 [안]의 용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기록에서 겹감과 안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거나 홑옷이거나 관모, 신 등과 같이 겹·홑의 의미가 별로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문헌 기록이 당연히 겉

에 보이는 색을 언급한 것이라 판단하여 모두 겉의 용도에 포함하였다. 대부분 겉의 용도이므로 체계에서 [안]의 표시가 없는 것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모두 겉의 용도로 이해하면 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체계를 구성하였다. 후기의 문헌에 등장하지만 전기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복식은 체계의 편입이 애매했는데 이 경우 일단 전기의 체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발 구조가 광대하므로 지면관계상 각 신분별로 나누어 그림을 제시하였고(그림 2~4), 체계에서 드러나는 자색계 개별 색명의 용도적 의미를 <표 7>과 같은 의미성분의 결합식으로 정리하였다.

결합식이 각 신분계층의 남녀에게 골고루 분포되고 종류가 많을수록 용도적 의미의 범위가 넓은(즉, 다의적인) 색명으로, 이는 곧 그 색명이 그만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신분계층의 남녀에게 다 사용되어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보이는 색명은 紫와 紫的이며, 그 다음으로 甫羅도 비교적 사용자의 보편성이 우수한 색명이다.

紫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모두 사용된 색명으로, 대부분의 신분계층의 남녀에게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특수신분 중 [軍人(軍官과 軍卒)]과 [別監], [下隸]와 [差備人]의 복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궁의 각종 행사에 동원된 차비인이나 궁중의 잡직을 맡았던 별감, 궁궐수비나 행사에 동원된 군졸 등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대체로 궁과 관련된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써 [宮闕][下隸]의 신분상징적 의미가 실제의 용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紫는 착용상황을 볼 때 [의례복]의 용도가 강한 경향을 보인다. 왕족의 경우 [일상복]보다 [의례복]쪽으로 용도가 치우쳐 있고, 사서인의 경우 [의례복]과 [일상복]의 분포가 고루 나타나나, 특수신분에서 다시 [의례복]이나 직업복의 용도로 치우쳐 있어 전반적으로 볼 때 [의례복] 용도가 강하다. 의례복은 의례의 존속

<표 7> 용도적 의미성분의 결합식

신분 및 색명	시기	왕족		사서인		특수신분	
		男	女	男	女	男	女
紫	전기	[의][부]		[의][관] [의][부] [일][표] [일][상]	[일][상] [일][신]	[궁][의][표] [궁][의][관] [궁][의][표] [궁][의][부] [군][표] [별][관] [별][표] [하][관] [하][표] [하][부] [차][관] [차][표]	[궁][의][부] [궁][일][하]
	후기	[의][표] [의][신]	[의][관] [의][표] [의][부] [일][부]	[의][관] [일][표]	[일][상]	[궁][의][표] [궁][의][표] [궁][의][부] [군][관] [졸][관] [졸][표] [별][관] [하][관] [하][표]	
甫羅	전기						
	후기	[의][표] [일][표] [일][표][안] [일][상] [일][하]	[일][표] [일][상]	[일][상]	[일][상]		[궁][일][상] [궁][일][하]
紫의	전기	[일]	[의] [일][표] [일][상] [일][하]	[의][부] [일][표]		[궁][의][부] [하][관] [하][표]	
	후기	[의][관] [의][표] [의][부] [일][표] [일][상]	[의][관] [의][표] [의][하] [의][부] [일][관] [일][표] [일][상] [일][상][안] [일][하] [일][신]	[의][부] [일][표] [일][상] [일][부]	[의][상] [의][부] [일][상] [일][신] [일][부]	[궁][의][표] [궁][의][부]	[궁][의][부] [궁][의][표]
紫芝	전기			[의][부]			
	후기			[의][표] [의][부] [일][표]	[일][상]		
紫地	전기			[일][표]			
	후기						
灰甫羅	전기						
	후기	[일][표] [일][상] [일][하]					

[의] = 의례복, [일] = 일상복, [관] = 관모, [표] = 표의, [상] = 상의, [하] = 하의, [부] = 부속, [궁] = 궁인, [공] =妓工人, [군] = 軍官, [졸] = 軍卒, [별] = 別監, [하] = 下隸, [차] = 差備人.

상생활에서도 늘 긴 袍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袍 안에 입은 바지의 색은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들은 일상적으로 치마, 저고리만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마의 색은 겉으로 많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치마를 보다 아름다운 짙은 색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였을 것이고 바지는 치마보다 색을 표현하는데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

용도적 의미성분 결합식의 사용자 분포범위가 좁고 종류도 적은 경우는 한정된 신분 및 성별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색명으로 紫芝, 紫地, 灰甫羅가 있다. 사용자의 범위가 좁은 색명은 용도적 의미가 곧 신분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紫芝는 조선 전기와 후기에 모두 사용된 색명으로 주로 [사서인]의 [의례복]과 [일상복]의 용도를 보이고, 紫地는 [사서인]의 [일상복] 용도를 보인다. 紫芝와 紫地는 紫의에 비해 사용자가 [사서인]에 제한되는 특징을 보이므로 민간에서 주로 사용된 색명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灰甫羅는 조선 후기에 사용된 색명으로 [왕족][남자][일상복]의 용도를 보인다. 착용상황이 모두 일상복이라는 점에서는 보라와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보라보다 사용자와 용도가 훨씬 제한적이다. 회보라가 왕족의 복식에만 사용된 것은 색의 희귀성, 즉 국말의 수입품이었을 가능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만하며, 남자의 일상복에만 사용된 것은 성별에 따른 보라의 개념적 의미차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만하다. 『규합총서』에 의하면 남자가 사용한 보라는 여자의 보라보다 푸른기가 강한 짙은 보라이다. 회보라는 색명으로 볼 때 보라에 회색기운이 가미된 색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회보라는 보라보다는 어두운 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보라가 남자의 색으로 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3. 경제적 의미체계

경제적 의미체계는 경제적 가치의 공통성과 유사성을 가진 색명들이 형성하고 있는 발 구조이다. 경제적 가치는 色織物 및 色絲의 가격비교를 통해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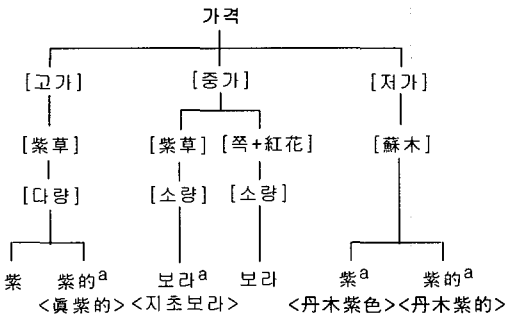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의미의 발 구조는 경제적 가치(즉 가격)의 고, 중, 저에 따라 분절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색직물 및 색사의 가격은 곧 염색재료의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개별 색명들은 색직물 및 색사의 가격으로부터 곧바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의미성분을 통하여 분절되는 계층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가격과 재료를 모두 고려하여 형성된 경제적 의미체계는 <그림 5>와 같다. 경제적 의미체계는 모두 조선 후기의 사정을 말한 것이다.

조선의 紫는 紫의과 같은 개념이므로, 재료의 의미성분에 따라 [고가]의 의미와 [저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재료의 의미성분이 [紫草][다량]이면 [고가]의 경제적 의미를 가지며, [蘇木]이면 [저가]의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용도적 의미체계에서 대비의 적의에 사용된 紫色은 [紫草][다량]의 의미성분을 가진 [고가]의 자색이며, 군인과 별감, 하례와 차비인 등의 복색으로 많이 나타난 紫色은 [蘇木]의 의미성분을 가진 [저가]의 자색일 가능성이 있다. 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료의 의미성분을 통해 [중가]의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紫草][소량]의 재료적 의미를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쪽+홍화][소량]의 의미를 통해서이다. 紫의은 紫와 마찬가지로 재료의 의미성분에 따라 [고가]와 [저가]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

4. 사상적 의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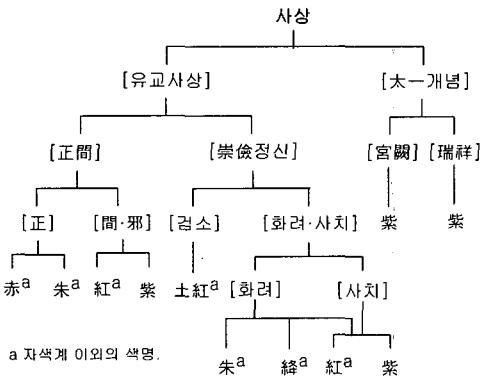
사상적 의미체계는 사상적 의미의 공통성과 유사성을 가진 색명들이 형성하고 있는 발 구조를 말한다. 사상적 의미의 발 구조에서 공통요소(즉 중간단계의 의미성분)로 유교사상과 太一개념을 찾을 수 있었다. 유교사상은 [正間]과 [崇儉정신]으로 나누어졌다. [正間]은 [正]과 [間·邪]로, [崇儉정신]은 [검소]와 [화려·사치]의 의미로 나누어져 분절구조를 형성한다. 太一개념은 [宮闕]과 [瑞祥]의 의미로 나누어졌다.<그림 6> 사상적 의미체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연상적 의미체계는 개별 색명이 지니는 의미적 연상에 의해 형성된 체계이므로 자색계 색명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색 계열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

한 그렇게 될 때 체계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a 실제로는 <>안의 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5> 경제적 의미체계



a 자색계 이외의 색명.

<그림 6> 사상적 의미체계

V. 결론

이 연구는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통시적 변천특성을 살펴보고, 자색계 색명의 다양한 연상적 의미들을 의미체계를 통하여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紫는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甫羅, 紫的, 紫芝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색명의 형태와 의미가 분화되어 세력이 성장하였다. 또한 紫的은 紫芝, 紫地, 紫赤으로 교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深/淺(淡)관련 복합색명들은 眞/軟관련 복합색명으로 교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에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일시적 색명들이 있었다. 이상에서 자색계 개별 색명들이 시간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신분상징적 의미, 용도적 의미, 경제적 의미, 사상적 의미를 통하여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紫는 신분상징의 은유적 표현을 통하여 관직이나 公卿의 높은 지위, 궐내 掖隸의 신분을 상징한다. 구체적 사용자와 용도의 대략을 보면, 紫는 대비의 翟衣, 朝臣의 첩리와 答紵, 內侍·軍人·下隸·差備人의 衣와 巾 등에 사용된 색이다. 보라는 왕족의 表衣, 저고리, 바지를 비롯하여 士庶人의 저고리 등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된 색이다. 紫的은 왕의 表衣, 대비의 翟衣, 왕비·세자빈의 赤古里와 치마에 사용되었으며 朝臣의 첩리를 비롯하여 일반인의 복식 일부분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회보라는 주로 왕족 남자의 表衣와 저고리, 바지 등에 사용되었다. 자색계 색명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색은 紫草를 이용하여 염색한 紫(紫的)이고, 그 다음이 보라이며, 가치가 가장 낮은 색이 丹木紫色(丹木紫的)이었다. 紫는 유교사상과 관련하여 '사악한 것'과 '화려·사치'의 대명사로 표현되는 색명이었으며, 太一개념과 관련하여 '궁궐'의 의미와 '瑞祥'의 의미를 지닌 색명이었다. 이상에서 자색계 색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연상적 의미에 매우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각각의 연상적 의미들을 토대로 자색계 색명의 연상적 의미체계를 수립하였다. 신분상징적 의미체계에 [高官]과 [宮闕][下隸]의 신분을 의미하는 紫가 속해 있었다. 용도적 의미체계는 사용자의 신분 및 성별, 복식의 착용상황, 복식항목 등을 의미 성분으로 하여 분절되는 구조를 보였다. 모든 신분 계층의 남녀에게 모두 사용되어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보이는 색명은 紫와 紫的이며, 甫羅도 비교적 사용자의 보편성이 우수한 색명이었다. 紫는 특히 [軍人], [別監], [下隸], [差備人]의 복색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며, 紫的은 紫에 비해 사

용된 복식항목의 종류가 더 다양했다. 보라는 주로 [일상복]의 용도를 보였다. 이들과 달리 紫芝, 紫地, 회보라는 사용자의 범위가 좁거나 용도가 제한적인 특징을 보였다. 경제적 의미체계는 [고가], [증가], [저가]의 가격과 염색재료 및 분량의 의미성분을 통하여 분절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紫와 紫의 은 [고가]와 [저가]의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가지며, 보라는 대체로 [증가]의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 사상적 의미체계는 [正間]사상과 [崇儉정신]으로 대별되는 유교사상과 [宮闕]과 [祥瑞]의 의미로 대별되는 太一개념을 의미성분으로 갖는 분절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립된 색명체계들을 통하여 자색계 개별색명이 갖는 연상적 의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조선 전기와 후기의 구조의 차이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자색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연상적 의미는 개념적 의미와 달리 하나의 색 계열에 한정되지 않고 공통의 연상적 의미성분을 기준으로 다른 색 계열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추후 다른 색 계열 색명들의 연상적 의미에 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연상적 의미체계를 확대하고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는 화자나 청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개성적인 체험과 관련된 느낌이나 생각, 또는 정서적 연상에 기초를 둔 언어의 의미이며,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는 언어 사용의 사회적 환경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 나타나는 의미이다. 내포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는 모두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에 대비되는 연상적 의미(associative meaning)에 해당한다.(박종갑 (2001). 토론식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개정판). 서울: 박이정, pp. 48~51.)
- 2) 의례는 매우 방대한 양이므로 복식과 직물 관련 기록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만을 선별하여 고찰하였다. 嘉禮都監儀軌의 경우, 一房儀軌가 시작되기 이전에 의식에 쓰이는 복식·직물 품목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과, 一房儀軌 가운데 尙衣院이 제조한 품목들을 상세히 기록한 부분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殯殿·殯宮都監儀軌의 경우, 儀註와 三房儀軌 가운데 복식·직물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沐浴, 襲, 小斂, 大斂 부분을 위주로 조사하였다.
- 3) 『才物譜』 권6 物譜1 布帛, 『廣才物譜』 衣服部 染記.
- 4) 『朝鮮女俗考』 제6장 婚姻論財.
- 5) 『五洲衍文長箋散稿』 권22 種苳染紫辨證設. 『최학영(신스동형)브림블기』, “양즈덕던오통”, 『신스팔월니익순브림블기』, “각식문소스티익빅건... 양즈덕이십”, “각식환도영이빅건... 양즈덕십”.
- 6) 『別付上納件記(庚辰十二月二十日第二次)』 “各色氈七疋... 洋紫芝一疋”.
- 7) 『眉巖日記』 5권 乙亥 12월 17일 “紫芝繪帶”.
- 8) 『仁祖殯殿都監儀軌』 大斂時散衣數 “紫芝花紋段袷衣一”, “紫芝綾袷衣一”.
- 9) 『순종실록부록』 순종12년 1월 26일 “紫芝別紋緞枕一”, 순종15년 5월 13일 “袷襦一[外供紫芝貢緞內供白三八紬], 枕[紫芝貢緞], 龍袍[外供紫芝漢緞內供紅漢緞], 地褥[內外供紫芝貢緞]”, 『朝鮮女俗考』 제6장 婚姻論財.
- 10) 『眉巖日記』 3권 庚午 12월 30일 “紫地厚天益”, 壬申 11월 3일 “紫地衣”.
- 11) 『星湖僿說』 권4 萬物門 “今之赤紫 則染以紫草 而國人謂之紫地”.
- 12) 『秋官志』 제4편 掌禁部 申章 奢侈 “世宗九年 讓寧大君妾件里 着紫赤衣”.
- 13)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敕命 “第八淡紫色雲鳳白紋”.
- 14) 『五洲衍文長箋散稿』 권22 種苳染紫辨證設 “染法 五洲錄... 染十次則鮮明可用淡則不中用此是真紫の色也”.
- 15) 연도미상의 『嬪宮媽媽衾枕』, 『東宮媽媽衾衣件記』에 衾薦衣에 사용된 색으로 ‘粉紅兩色(倭紬·倭紬五目縷緋·倭紬中縷緋·倭紬細縷緋) 衾薦衣’의 기록이 있다. 연도미상의 『주단블기』에 ‘다홍냥식(고단·접문모초), 분홍냥식(고단·접문모초), 진분홍냥식고단, 도홍냥식(고단·접문모초), 녹홍냥식(고단·접문모초), 보라냥식고단’의 기록이 있다. 1893년 『癸巳四月二十一日 李用俊進上件記』에 ‘桃紅兩色別紋庫緞’, 연도미상의 『尹圭燮進上』에 ‘藍紅兩色縹紋寧絹’의 기록이 있다. 연도미상의 『길례시금침블기』에 ‘즈냥식왜두남작누비금’, 연도미상의 『주단블기』에 ‘즈식냥식왜두’의 기록이 있다. 연도미상의 『의복블기』에 ‘즈덕양식(잔누비이불·향천의)’, 1897년 『등유팔월길례시막기셔드러오니』에 ‘즈덕냥식왜두’의 기록이 있다.
- 16) 민길자 (1997). 전통웃감. 서울: 대원사, p. 50.
- 17) 위의 책, p. 50.
- 18) 紫袍(『英祖實錄』 영조1년 8월 己丑), 緋紫(『燕山君日記』 연산군3년 7월 庚戌, 『高宗實錄』 고종21년 11월 丙寅 “以緋紫爲裳”).
- 19) 『成宗實錄』 성종22년 7월 甲午, 『燕山君日記』 연산군3년 3월 辛酉, 『孝宗實錄』, 효종4년 7월 乙丑, 『肅宗實錄』 숙종22년 1월 丙寅, 숙종30년 5월 壬子.
- 20) 紫衣(『英祖實錄』 영조52년 2월 庚戌, 『正祖實錄』 정조12년 12월 庚寅).
- 21) 김순영 (2004). 조선시대 복식의 적색계와 자색계 색명(色名)체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78~291.
- 22) 『世宗實錄』 세종9년 2월 丁丑.
- 23) 『世宗實錄』 세종32년 1월 癸巳.
- 24) 『芝峯類設』 권3 君道部 法禁.
- 25) 『世祖實錄』 세조11년 3월 癸酉, 『光海君日記』 광해군9년 9월 戊子.

- 26)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敎命 “第四淡藍色”, “第五淡紅色雲鳳白紋”, “第六淡黃色雲鳳白紋”, “第七白色雲鳳淡黃紋”, “第八淡紫色雲鳳白紋”.
- 27) 『肅宗實錄』 세종35년 6월 戊午 “眩亂於靑紫之別”.
- 28) 『世宗實錄』 세종22년 8월 壬午.
- 29) 『世宗實錄』 세종26년 11월 壬寅.
- 30) 『朝鮮王朝實錄』에서 화려함, 사치의 의미로 사용된 紅紫의 표현이 등장하는 기사는 총 21건이다.
- 31) 『中宗實錄』 중종8년 2월 乙巳, 『高宗實錄』 고종17년 11월 乙亥.
- 32) 『眉巖日記』 4권 癸酉 9월 9일, 甲戌 9월 9일, 5권 부록 重九小酌.
- 33) 『史記』 封禪書, 『淮南子』 天文訓.
- 34) 낱말발 이론과 성분분석 이론의 대강은 김순영, 남윤자, 조우현 (2004),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28(11) 참조.
- 35) 『世宗實錄』 세종9년 2월 丁丑, 세종32년 1월 癸巳.
- 36) 『世宗實錄』 세종27년 8월 丁未.
- 37) 『高麗圖經』 권21 小親侍.
- 38) 김순영, 남윤자, 조우현 (2004),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자색계 색명의 개념적 의미, 한국의류학회지, 28(11).